



손흥민 '부진 탈출'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상대 시즌 13호골...3경기 연속 득점
토틸넘, 3년만에 정규리그서 맨시티에 승리...순위 8위→5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틸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전 승리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위 맨시티와의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1-0으로 앞선 후반 26분 썩기골을 넣으며 2-0 승리에 힘을 보탤다. 손흥민은 이로써 시즌 13호골, 정규리그 7호골 사냥에 성공했다. 노리치시티전에 이어 정규리그 2경기 연속

골, 26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사우샘프턴 전까지 더하면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한동안 이어졌던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손흥민은 또 팬 가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2016-2017시즌 이래 맨시티를 상대로 제이비 바디(레스터시티·6골) 다음으로 가장 많은 5골을 넣어 이 팀에 유독 강한 모습을 이어갔다. 2위(승점 51)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토틸넘은 승점 37점(10승 7무 8패)을 쌓아 리그 8위에서 5위로 점프했다. 다음 시즌 유럽축

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마지노선인 4위 첼시를 승점 4점 차로 추격했다. 토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정규리그에서 승리한 건 2016년 10월 이후 3년여만이다. 손흥민은 후반 26분 탕기 은돔벨레가 찰리 존 전진 패스를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득점했다.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골대 왼쪽 하단 구석에 꽂히는 예리한 슈팅이었다. 손흥민은 전반부터 부지런히 상대 진영을 누비며 골 찬스를 노렸지만 좀처럼 슈팅 기회를 잡지 못했다. 후반 3분 역습 상황에서 상대 선수 4명을 끌고 다니며 단독 드리블을 펼쳤지만, 문전에서 저지당했다.

후반 13분에는 침투 패스로 델리 알리에게 득점 기회를 열어주는 듯했지만, 이번에도 상대 수비에 막혔다. 토틸넘에 첫 득점을 안긴 건 아약스(네덜란드)에서 막 이적해온 공격수 스테벤 베르흐베인이었다. 베르흐베인은 후반 18분 루카스 모라의 패스를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가슴으로 한 번 트래핑한 뒤 오른발 슈팅을 날려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 맨시티는 0-0이던 후반 10분 수비수 올렉산더 진첸코가 단독 드리블을 하던 해리 윙크스를 거친 파울로 저지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게 뼈아팠다.

/연합뉴스

여름→박진섭 감독
허울→펠리페

우상과 만남에 설레는 훈련

'역전의 명수' 심프슨

광주 FC 태국 훈련 캠프

'피돌이' 박감독·'득점왕' 펠리페
"장점 흡수해 팀에 주축 되고 싶어"

'우상과 함께'라서 더 의미 있는 광주FC의 캠프다.

K리그1으로 복귀한 광주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2차 전지훈련을 하면서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만큼 광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여름과 허울은 광주는 물론 외부에서 주목하는 선수들이다. '터줏대감'인 여름은 올 시즌에는 주장까지 맡아 광주의 도전을 이끌어야 한다. 금호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난 '막내' 허울은 광주 공격 다변화의 새로운 축이다.

남다른 각오로 캠프를 치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번 캠프는 우상과의 캠프라 더 의미가 있다. 여름의 우상은 바로 박진섭 감독이다.

현역시절 '피돌이'로 사랑을 받은 박 감독은 여름의 톨도벨을 넘어 우상이었다. 마음속 우상이었지만 여름은 같은 팀 감독인 만큼 그동안 그 마음을 숨겨왔다.

여름은 "감독님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감독님이 우상이라고 하면 동료들이 어부지르라고 할까 봐 걱정이었다(웃음)"며 "어렸을 때 친척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원조 피돌이 박진섭이라고 피돌이 공치는 분이시다'고 설명을 했었다. 군대에 있을 때도 빨리 제대해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름은 본격적으로 박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지난 시즌에 '부주장'으로 우승에 기여했다. 올해는 주장으로 박 감독과 팀전에서 서게 됐다.

여름은 "감독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선수지만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아직도 감독님에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 낮은 자세로 계속 배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나 혼자만 아니라 11명, 뒤에서 응원해주는 전체 선수들까지 힘이 합쳐지면 광주가 무서워질 것이다.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며 광주의 뜨거운 2020시즌을 예고했다.



허울

허울에게는 펠리페라는 우상이 있다. K리그 2 '득점왕' 펠리페가 처음 팀 훈련에 합류한 날 허울은 수줍게 악수를 청하면서, 우상과의 만남을 반기워했다.

아직도 키가 크고 있지만 프로필로 따지면 허울과 펠리페는 193cm로 키가 똑같다. 머리를 활용한 득점력도 공유하는 장점이다. 고교 무대를 평정한 허울은 넓은 필드 펠리페를 따라 프로 무대에서도 실력을 발휘하는 게 꿈이다.

허울은 "홈경기 보러 가면 펠리페를 집중해서 봤다. 크로스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수비할 때 내려와서 수비 같이 해주는 모습에서 많이 배웠다"며 "펠리페 영상도 많이 봤다. 대전과의 1-0 경기에서 원발 중거리슛으로 사각지대에서 넣은 골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퍼펙트 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울이 짙은 '최고의 골'은 펠리페 역시 첫 손에 꼽는 2019시즌 베스트 골이기도 하다.

허울은 "공중볼이 투입되면 헤딩이든 슈팅이든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피지컬 부분을 채우는 데 주력해 가운데서 버티주고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다"며 "많은 경기에서 나서고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 빨리 적응해서 그라운드에서 사자 같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뚝배기 맛집(헤딩골 전문)'이 되겠다"고 요즘 선수다운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름

지상파 3사, 프로야구 중계 4년 2160억 계약

KBO가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BO는 "3일 KBO 7층 기자회견에서 KBO 리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중계방송권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며 "이번 계약은 4년간 총 2160억원 규모로 국내 프로스포츠 중계방송권 계약 사상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지상파 3사는 지상파 TV를 통해 2020-2023시즌 경기를 직접 방송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케이블 및 IPTV 유료채널 사업

자에게 중계방송권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동영상 취재권 및 보도권도 갖는다.

KBO와 지상파 3사는 리그 저변 확대를 위해 비디오판독 영상 제공, 영상 아카이브 시스템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KBO는 지난해 통신·포탈 컨소시엄과 5년간 총 1100억원(연평균 220억원) 규모의 유무선 중계방송권 계약을 맺는데 이어 초대형 TV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760억원 이상 중계권료 수익을 벌어들일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피닉스 오픈 연장서 극적 우승

안병훈, 11언더파로 공동 9위

웹브 심프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총상금 730만달러)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뒀다.

심프슨은 3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스크츠데일의 TPC 스크츠데일(파71·726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심프슨은 토니 피나우(미국)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 홀에서 열린 연장전은 티 샷에서 승부가 갈렸다. 피나우는 티 샷을 벅커에 빠트렸지만, 심프슨은 페어웨이에 올랐다.

피나우가 버디 퍼트를 놓치고 파 퍼트를 넣으며 먼저 홀을 마쳤다. 심프슨은 차분하게 3m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2012년 US오픈, 2018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등에서 우승했던 심프슨은 이번 우승으로 시즌 첫 승, 통산 6승을 달성했다.

17번 홀부터 연장전까지 3개 홀 연속 버디로 역전극을 펼친 심프슨은 지긋지긋한 준우승 굴레에서도 벗어났다.

심프슨은 지난해 6월 RBC 캐나다 오픈, 7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페덱스 세인트주드 인비테이셔널, 8월 윈덤 챔피언십, 11월 RSM 클래식에서 4차례나 준우승에 머물렀다. 3년 전인 2017년 피닉스 오픈에서는 연장전 끝에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에게 패해 준우승에 거뒀다.

지난달 27일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행인 피나우는 이번 대회 16번 홀(파3)에서 브라이언트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며 추모했다.

피닉스 오픈 16번 홀은 2만여명을 수용하는 대형 관중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명물'이다. 팬들의 응원과 고성이가 허용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에서 플레이한다.

PGA도 4라운드에서 16번 홀의 홀 위치를 그린 위쪽으로 24걸음, 왼쪽으로 8걸음이 만나는 지점으로 정해 브라이언트를 추모했다. 8과 24는 브라이언트가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에서 뛴 당시 달았던 등 번호다. 16번 홀 깃발에 양면에는 각각 8번, 24번을 적어 넣었다.

한편 안병훈은 4라운드에서 1타를 잃으면서 최종합계 11언더파 273타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상처받은 팬심 보상 받을까

호날두 '노쇼' 오늘 손배소 선고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로 상처받은 '팬심'은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축구팬 A씨 등 2명은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주위사인 테페스타가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해 7월 30일 소송을 냈다. 당시 경기를 앞두고 친선경기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땀'은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호날두 출전 여부는 입장권 판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주위사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날두 출전이 확실치 않았다면 입장권을 안 샀을 텐데 테페스타의 거짓 광고에 속아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얘기가. A씨 등은 여기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들은 대리하는 김민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례는 비슷한 경우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호날두를 향한 '팬심'을 이용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